



Global Market Report 14-018

2014.6.17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I.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 분석 / 1

- | | |
|----|--------------|
| 1 | 1. 포로셴코 당선배경 |
| 7 | 2. 대선의 의미 |
| 12 | 3. 정책 방향 |

II. 신정부의 과제 / 18

- | | |
|----|-----------------|
| 18 | 1. 경제 회생 |
| 21 | 2. 동부지역 분리주의 해결 |
| 23 | 3.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
| 27 | 4. EU 가입 추진 |
| 29 | 5. 부정부패 척결 |

III. 대선결과에 따른 기대와 평가 / 30

- | | |
|----|--------------------|
| 30 | 1. 국내 반응 |
| 32 | 2. 주요국 반응 및 경제적 영향 |

IV.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41

- | | |
|----|--------------------|
| 41 | 1. 현지진출기업 반응 |
| 41 | 2. 기회 요인 |
| 43 | 3. 위협 요인 |
| 44 | 4.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방안 |

요 약

2013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정국 혼란 속에서 지난 5월 25일, 신정부를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초콜릿 왕’, ‘비즈니스맨’,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등, 전통적인 정치인도 아닌, 엘리트도 아닌 경제계 냄새를 물씬 풍기는 수식어를 가진 포로셴코 대통령이 당선하게 된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이다.

55%(투표율 : 60.3%)의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당선된 포로셴코는, 시대 상황에 맞춰 친러와 친서방 성향을 오갔던 대부호이며, 2013년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자 가장 먼저 경제적 압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8월, 우크라이나가 EU 준회원 가입 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품 수입 제재를 가하였는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업이 다름 아닌 포로셴코 당선인이 운영하는 ‘로셴 초콜렛’이었던 것이다. 동 제재를 통해 포로셴코는 2013년 한 해 동안 20% 이상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 이 시기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되자 시위중심지인 유로마이단에 금전적 지원은 물론 서방측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선 제 1 공약으로 EU와의 FTA체결을 약속한 친서방 성향의 포로셴코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세운 우크라이나는 과연 형제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재정립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로마이단(유럽 광장)’의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외치던 ‘독립’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들이 외치는 ‘독립’의 대상이 과연 러시아인지, 형편없이 악화되고 있는 서민의 ‘먹고 살 문제(경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창시한 사람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크라이나 스스로 깨닫고, 냉철한 이성으로 정치적 안정, 경제회생, 러시아와의 관계회복, EU와의 경제적 협력, 국가안보 등 산재해 있는 국가적 과제를 재조명해보면서 ‘Great Game’의 종착지가 될 우크라이나 시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역사적인 배경과 직접적인 계기 등 다각도에서 분석해보았다. 동과 서로 인종 분포가 나뉘어져 러시아와 유럽의 힘겨루기 현상으로 양측 모두 상대측 견제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숙명이기도 하다.

신 냉전 무대로 세계의 관심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조기 대선 결과는 예측 가능하였으나 국제사회는 지금부터 더욱 우크라이나의 대외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임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프로셴코 당선자는 서방과 러시아간의 갈등을 합리적이고 실리적으로 풀어야하는 숙제를 수행할 인물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안보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주요 지역이지만 삼자가 모두 웃을 수 있는 정책방향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불어 아직도 진행 중인 동부의 분리운동을 진정시키고 동과 서를 화합하는 과제 역시 호락호락하진 않아 보인다. 프로셴코 당선자는 당선 직후 즉각적인 무력대응을 펼치고 있으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신정부의 동부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사업가 출신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더 물러서 곳이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 경제 회생이다. IMF 금융지원 조건으로 살을 깎는 경제 제반의 개혁이 수반되어야하는 바, 국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제 개혁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많은 위기는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 절호의 찬스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시장을 분석하고 대내외 상황을 주시하여 유망 품목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시장 분석하여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찾았으며 유망 진출 품목을 제안하고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며 많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바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첨언하고자 한다.

I.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 분석

1. 포로셴코 당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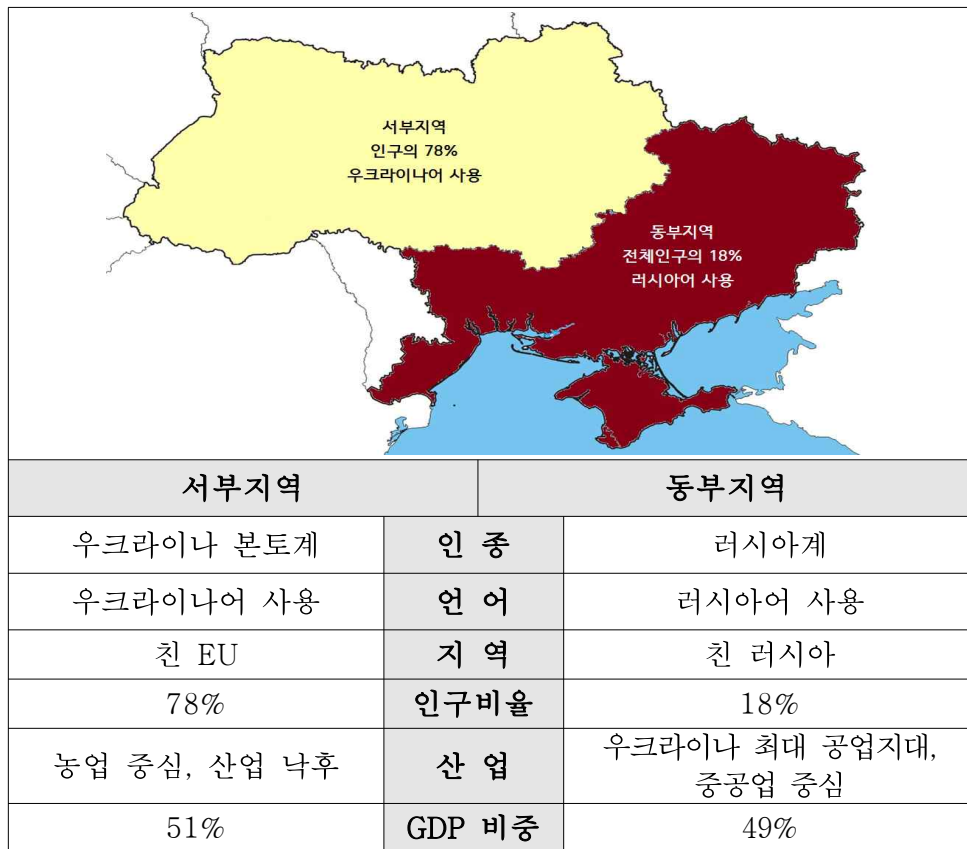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 요약

○ 우크라이나 사태 경과 일지

2004	부정 선거 규탄하는 '오렌지혁명'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
2005	혁명의 주역인 '티모셴코' 총리에 임명
2010	야누코비치, 대통령 선거에서 티모셴코 누르고 당선
2011	티모셴코, 직권 남용죄로 징역 7년형 선고
'13 11. 21.	EU와 FTA 협상 중단, 러시아와 관계 강화 선언 -> 반정부 시위 발생
12. 17.	러시아, 150억달러 경제 지원과 천연가스 공급가 할인을 약속
'14. 2. 18	헌법 개정안(대통령 권한 약화) 통과안됨 → 시위 격화 → 정부 강경 대응
2. 19~20	경찰병력(저격수) 동원, 대규모 유혈사태로 100명가량의 사상자 발생
2. 22	야당 주도 의회, 야누코비치 대통령 권한 박탈, 티모셴코 前총리 석방
2. 23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조기 진행 결정(5월 25일)
3. 16	크림반도 분리 주민투표 실시
3. 21	러시아에 크림 합병 완료
4. 15	우크라이나 동남부(오네츠크, 루간스크, 하리코프) 분리 독립 무력 충돌
5. 25	우크라이나 조기 대선 실시 - 포로셴코 당선(득표율 : 55%)

○ (역사적 배경) 러시아와 유럽의 힘겨루기

- 역사상 서쪽은 오스트리아/폴란드, 동쪽은 소비에트 연방 지배하에 있던
혼적으로 서부 우크라이나는 親EU, 동부 우크라이나는 親러시아 성향임



○ (직접적 계기) EU 협상 중단이 반정부 시위로 확산

- EU와 제후협정 체결을 추진하던 정부가 이를 중단하고 러시아의 150억 달러 경제 지원을 받기로 하며 친러 성향으로 돌아섬에 따라 EU 가입을 지지하던 서부지역과 야당이 중심이 되어 반정부 시위 시작 ('13. 11. 21.)

※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둘러싼 서방 vs 러시아의 입장

- EU는 우크라이나를, 재도약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주축국으로 여겨
-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의 위상 회복을 위한 '유라시아 경제연합' 추진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
- *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관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함.
- 미국은 CIS 경제 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통해 서방을 견제하려는 러시아 의도를, 지나친 도발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완충지역으로 두어야하는 상황

- (크림 반도 분리) 분리 주민 투표 실시 후 러시아에 합병 (3. 21)
 - 2014년 이행을 거쳐 2015.1.1. 크림은 러시아에 완전 합병 예정
 - 크림, 러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전담 부서 신설 및 전담 장관 임명)

3. 16	·크림반도 분리 주민투표 실시 - 러, 크림반도의 의견 존중 - 미, 불법투표로 인정 불가 선언
3. 17	·러, 크림반도 관련 협상안 제시 - 우크라이나 중립화, 연방제 개헌, 러시아어 공용어 지정이 골자
3. 18	·크림의회, 독립선언, 우크라 군대 해산 ·푸틴, 크림 독립국 지위 승인 ·미, 러·우크라이나 제재 단행
3. 19	·푸틴, 크림 합병조약 서명 ·EU, 러 G8자격 정지 등 강력 제재 검토 ·우크라이나 군 철수
3. 20	·러 하원, 크림 병합조약 비준 ·우크라이나 의회, 크림자치공 ‘잠정상실지’ 선언

- (조기 대선 실시) 55% 득표율로 親EU 성향의 포로셴코 당선 (5. 25)
 - 동부지역 투표 대거 불참 (전체 인구의 14%)
 - * 도네츠크 13.7%, 오데사주 46% 투표 참여로 70%의 투표율을 보인 서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투표 참여율을 보임
- (동서 갈등) 친러 지역인 동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유혈사태 지속
 - 4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교전으로 200여명 사망

□ 포로셴코 당선

- 전체투표율 60.3%에서 55% 득표율로 포로셴코 당선
 - 우크라이나 대선에서는 1위 득표율이 50%미만일 경우 1위와 2위가 2차 투표를 치르게 되나 포로셴코가 55%를 득표함으로서 1차로 당선이 확정됨
 - 지역별로 서부지역은 55%, 동부는 40%를 득표하였으며 그 중 교전지역인 3개 지역(루간스크, 하리코프, 도네츠크)에서 34.8%를 득표함

- 이번 선거에서는 차기 정부의 정당성 논란 가능성으로 인해 투표율도 관심을 모았는데, 서부 지역은 66%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동부지역에서는 45%에 그쳤으며 특히 교전지역에서는 34%만이 투표에 참여하였음.
- * 3개의 동부 교전지역에서는 투표소가 1/4도 열리지 못했으며 포로셴코를 자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우크라이나 지역별 조기 대선 투표율과 득표율



* 자료원: 우크라이나 중앙선거위

□ 포로셴코 당선자 사회적 이미지

포로셴코 당선자 이력

✓ 약력

- 우크라이나 남부 비니찌아 주 출신
- 키예프 국립대학 국제관계·국제법학부 졸업
- 1998년(34세)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
- 2001년 무역경제발전장관 취임
- 2009년 외무장관 취임
- 2012년 경제개발·통상 장관 겸 중앙은행 총재 취임
- 2014년 6월 7일 대통령 취임



- 페트로 포로셴코(48)

✓ 정치인으로써의 이력

년도	성향	정권	이력
2001년	친 러	- 솔리다르노스트 정당설립 (친러/반서방의 지역당 모태)	무역경제발전장관
2004년	친 서방	친러 반정부 시위 지원	오렌지혁명 협력 (자금줄 역할)
2009~2010년	친 서방	유셴코	외무장관
2010년	친 러	야누코비치	경제개발통상부장관
2013~2014년	친 서방	친러 반정부 시위 지원	반정부 시위지지 (자금줄 역할)

✓ 사업가로서의 이력

- 대학 졸업 직후 카카오 열매 판매로 비즈니스 시작. 1990년대 몇 개의 제과 회사 인수 후 '로셴'으로 합병하면서 사업 규모 확대
- '로셴' 성공 이후, 자동차 생산 · 조선 ·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전형적인 신흥재벌 출신으로, 현재 개인자산 16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가

- 임기 기간 중 부패에 노출되지 않을 재력가라는 이미지
 -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 및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오랫동안 학습한 우크라이나 국민은 기존 정치 지도자들과 완벽히 다른 지도자를 동경
 - 포로셴코는 이미 막강한 재력을 소유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부정부패에 가담할 확률이 적다는 긍정적 인식이 작용
 - 당선 뒤 방송국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매각하고 국정 운영에만 매진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
- 친 서방 성향
 - 기업가인 당선자는 친서방 성향이 강한 편이며 오렌지혁명 협조, 유로마이단 지지 등 서방측이 지지할 만한 이력 보유
 - 주요 대선 공약으로 EU와의 FTA 체결을 우선 국정 과제로 꼽음
 - * 친 서방 성향이 강한 서부에서 55% 득표를 하였으며 특히 반정부 시위의 발화점인 키예프시에서는 64% 득표라는 높은 지지를 얻음
-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가능 인물
 - 친러정권시 경제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이번 대선 공약 중 역내 안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주요 과제로 제시 (NATO 가입 반대)
- 정치적 편향이 적은 중도주의적 이미지
 - 무소속으로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경제인 출신답게 실용주의적 성향의 이미지로 어필
- 국가 개혁 추진이 가능한 용기 있는 지도자로 기대
 - 2004년 오렌지 혁명 주역이던 ‘유셴코의 지갑’이라 불리며 자금줄 역할
 - 유로마이단의 공식 후원자로 소유주로 있는 방송사를 통해 24시간 반정부 시위를 생중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반정부 시위에 관심을 갖게 함.
- 경제적 마인드로 경제회복의 기대를 걸어볼만한 인물
 - 서방측 경제인들과의 관계성이 깊은 당선자는 서방의 자본 유치 및 핵심 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주력을 공약으로 내세움

2. 대선 의의

□ 국제사회에서의 의의

- 新냉전시대로 치닫고 있는 서방과 러시아간의 갈등을 풀어야할 막중 임무를 수행하게 될 인물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
- 미국: EU와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던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 움직임 저지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responsible behavior)을 요구하여 우크라이나의 이번 대선결과를 환영함.
- EU: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수출 감소에 따른 독일 경제계의 손실 규모는 최소 50억 유로로 추정되는 바, 신정부 출범 후 정국 안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자 없이 우크라이나 신정부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5. 26.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



후보별 정치적 성향 및 대선 결과

사 진	후보자명	득표율	출 신	특징 및 공약
	(당선) 페트로 포로셴코 (무소속)	54.7% (9,857,308표)	남부 오데사 주 불그라드市 ·기업인 출신	· 친 EU / 중도 실용주의 · EU와 FTA 추진 (NATO 가입 유보적 입장) · 경기 회복 · 부정부패 척결 - 지역정부개혁, 권한이양, 경제개혁, 일자리 확충 등
	비탈리 클리츠코 (UDAR)	페트로 포로셴코 지지선언과 함께 후보직 사퇴(2014.3.30) * 사퇴 당시 지지율 약 12%(2위), 클리츠코 지지층 포로셴코로 흡수		
	율리아 티모셴코 (조국당)	12.8% (2,310,130표)	동부 드네프로 페트로우시크州 ·총리 2번 역임	·친 EU / 급진파 ·오렌지혁명의 주역 ·우크라이나의 유럽화 및 NATO·EU 가입 추진 ·부정부패 척결 및 우크라이나 동·서 통합
	올렉 라쉬코 (급진당)	8.3% (1,500,377표)	북부 체르니히우州 ·언론인출신	·친 EU 급진 우파세력 ·對친러세력 강력한 제재 및 크림반도 탈환
	아나톨리 그리첸코 (우리 우크라이나당)	5.4% (989,020표)	중부 체르카시州 ·국방부장관역임	·친 EU ·국방부 장관 역임 ·NATO 가입 추진 및 친유럽화 추진 공약
	세르게이 티기프코	5.2% (943,350표)	·기업인 출신 ·前중앙은행총재	·중립 ·중소기업 세금 감면 ·공공의료분야 개혁

□ 국내 정치적 의미

○ 진정한 자주국가 건설

- 1991년 소련 붕괴라는 외부적 요인의 국가독립만 경험했을 뿐, 진정한 독립국가 역할 실패
- 러시아는 동일 민족, 역사 공유, 경제적 지배라는 배경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¹⁾'로 여겨왔고, 형제국 영향력을 행사해 옴.

○ 본격적인 서방화 추진

- 러시아와의 관계단절이 불가능한 우크라이나는 중도적 성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나 親서방 성향 인물이 당선됨으로써 서방측이 주도적 입장에 놓인 상태
- 프로셴코는 친 EU 성향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국정 과제로 EU와의 FTA 본격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음

○ 기득권층 변화

- 포로셴코 당선자는 무소속 출마로 당선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대표당의 대표들이 부진한 성적을 거둠
- * 조국당 12.8%, 급진당 8.3%, 우리우크라이나당 5.4% 로 당 대표 후보들이 모두 저조한 성적표를 받음.

○ 동부지역 신흥 재벌의 신정부 지지

- 도네츠크 지역 갑부 아흐메토프는 야누코비치 前대통령 후원자였지만, 지난 유로마이단 사태 후 야누코비치 지지 철회 및 동부 분리주의 반대 입장 표명
- 프리마트 은행 창업자 재벌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는 3월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주지사로 임명되면서 러 푸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사재를 털어 지역 분리주의 운동을 차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그룹 ISD의 세르게이 타루타 의장도 도네츠크 주지사로 임명되면서 통합을 강조,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등 분리주의 확산을 막는 데 노력을 쏟고 있음

1) 소러시아(러시아어 : 말렌키이 로시야)는 원래 루시(슬리브 민족) 원조 국가를 칭하는 말이었으나 와전되면서 러시아보다 작은 국가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동부 우크라이나 재벌 3인>

라나트 아흐메토프 (Rinat Akhmetov)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Igor Kolomoyski)	세르게이 타루타 (Sergey Taruta)
		
○ 1966년 도네츠크 타타르족 광부노동자 집안 출생 ○ 총 자산 129억 달러 추정 ○ 우크라이나 최대 재벌 ○ 우크라이나 핵심 산업 과점 (철강, 석탄 채굴, 전력 공급, 금융, 유통, 언론, 이동통신)	○ 1963년 출생 유대인 출신 ○ 우크라이나 재벌 ○ 포브스 추정 총 자산 18억 달러 ○ 現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주 주지사 ○ '10년 티모셴코 선거 캠프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형적인 친EU 재벌	○ 1955년 도네츠크 주 출생 ○ 총 자산 27억 달러 추정 ○ 現 중앙정부 임명 도네츠크주 주지사 ○ 분리주의 정부에 맞서 대테러 작전 및 대선 실시를 강행하는 등 강경 정책을 실시

신흥재벌(올리가르히_олигархи)

- ▶ 원래 러시아 과두정치 지배세력으로 구성된 산업·금융 재벌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신흥 재벌을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
- ▶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는 1세대 파블로 라자렌코가 총리직에 오른 이래로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
- ▶ 동부 각 지방에서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행사
 -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등 주요 동부 지역 주지사 역임 중
- ▶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올리가르히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및 경제 회복에 핵심 열쇠로 기대되고 있음

□ 국내 경제적 의미

- 친 서방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및 EU와 국제기관의 금융지원 확대 기대
 - 대선 직후, 미국은 5,0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EU는 13억 유로 규모의 원조 성격의 펀드 조성
 - IMF는 2년간 170억 달러 구조 금융지원 예정
- IMF가 제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조건 이행이 병행되어야 함
 - 지원 프로그램의 3가지 선행조건은 가스 및 전력 소비세 현실화, 자율변동환율정책 채택, 재정예산 감축 임.
 - 구제금융 지원에 긴축이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하는 바 우크라이나 정부에게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공공분야 인원 감축과 재정지출 삭감이 불가피해졌음.
 - * 현지 전문가들은 예산감축으로 현직 공무원 10%가량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외국인 투자유치로 사회복지지원 확대와 핵심 산업 육성 가능성 확대
 - 포로셴코 당선자는 경제인 마인드로 외국인 자본 유치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유치 확대에 따라 경제구조 개혁, 일자리 창출, 임금 및 연금 인상, 물가 상승률 안정화를 공약하고 있음.
- 미국 · 유럽 · 우크라이나 공동 에너지 개발사업 및 대체 공급 방안 구축
 - 러시아에 대한 유럽 · 우크라이나 에너지 의존도는 국제 갈등의 원인으로 드러남에 따라, 우크라이나 에너지 독립 및 효율화 사업에 국제기관 지원이 커질 것이며 더 나아가 유럽 ·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 높아
 - * 우크라이나 연간 에너지 자원 수입 : 전체수입의 27%이상, 이중 천연가스가 54%,
 - * 천연가스의 러시아 수입 의존도 : 50%

3. 정책 방향

□ 에너지 독립 및 다변화 추진

- 가스 수입 노선 다각화 추진
 - 2년 내 LNG 터미널(흑해연안) 완공 예정

우크라이나 LNG 터미널 프로젝트	
	· '12년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 Yuzhnyy Port 지역에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건설 - 야누코비치 정권에서 추진했지만 신정부 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 러시아와의 분쟁 및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 건설에 더욱 더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 · 현재 1단계 프로젝트 상당부분 진행 상태 - 美 엑셀러레이트社 공사 진행,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LNG 수입 개시할 예정 · 韓 가스공사,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약 10억 달러 규모 진출 MOU 체결

*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 가스 대체공급선 구축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가스 수입 노선 다각화 추진
▶ 2013년 11월부터 우크라이나는 독일(RWE사)로부터 가스 수입 개시 ▶ 2014년부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 수입 노선 확대 계획 수립 - 총 연간 70억 세제곱미터 가량의 유럽 가스 수입 ▶ 유럽 가스 수입 확대로 러시아 가스 연간 수입량 감축 계획 - 2014년 안에 180~200억 세제곱미터까지 감축

○ 셰일가스 개발 본격화

- 우크라이나는 유럽 3위의 셰일가스 매장국이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인 셸(Shell), 셰브론(Chevron)과 100억 달러 이상 계약 체결
- 2020년 생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연간 180억 입방미터 가스 생산 예상
- * 2012년 우크라이나 가스 소비량 : 500억 입방미터

○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 Ernst & Young에서는 크림사태 이후로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입처 다변화와 동시에 국내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
- 2009년 우크라이나에 'Green Tariff'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관련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뛰어난 일조량으로 인해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높은 생산률이 기대됨

<우크라이나 Green Tariff (201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종류		정부 구매 가격 (유로/MWh)
풍력	600kW 이하 설비	64.6
	600kW - 2MW 설비	75.4
	2MW 이상	113.1
태양열/ 태양광	일반 설비	465.3
	지붕 설치 설비, 100kW 이상	445.9
	지붕 설치, 100kW 이하 및 빌딩 설치 설비	426.5
소수력 발전		77.5
바이오매스 발전		123.9

* 출처 : Baker & Mckenzie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매력도는 2013년 기준 31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소폭 하락된 순위라고 Ernst & Young이 최근 발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럽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진출 매력도가 동유럽에서 체코와 함께 가장 높다고 강조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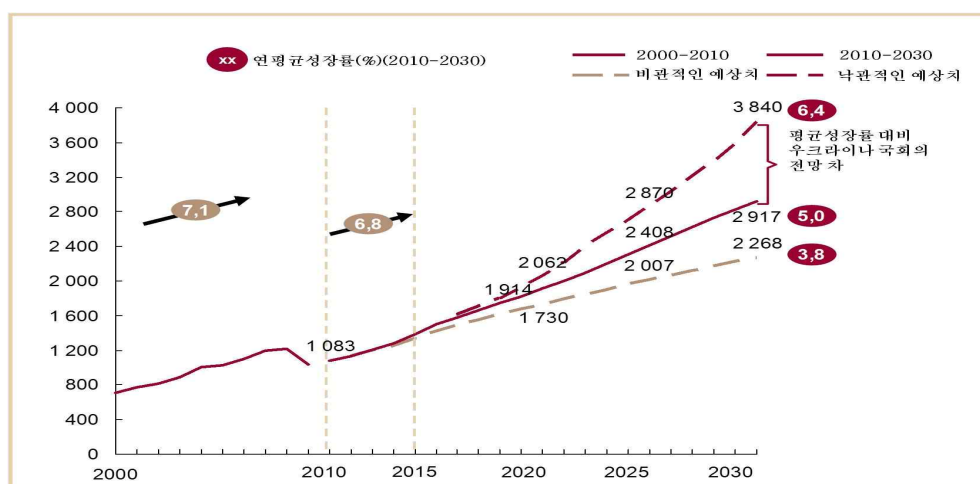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동유럽 최고의 잠재력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가스 등) 발전에서의 전력 생산은 전체 1%에 불과하나 EEC(European Energy Community)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력생산량의 40%에 이를 수 있다고 함.
- 독일 태양열 생산협회(BSW-Solar)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태양열 발전소 중 일조량이 가장 저조한 곳이 독일 내 일조량이 가장 좋은 곳(태양열 발전 지역)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함.
- 바이어가스 및 바이오매스 FIT는 kWh당 13유로 센트로, 최근 FIT제도를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보다는 2.4배가 높은 편임.
- 우크라이나는 2012년~2013년 간 태양열 발전 생산량이 1GW에 이를 것이며 이는 동 기간 이전의 5배 수준이라고 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2030년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비율을 12%로 증대
-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성 증대를 통해 GDP 연간 성장률 6.4% 달성

에너지전략 2030의 GDP 성장 전망



* 자료원: 우크라이나 에너지 효율청 '에너지 전략 2030'

□ 중점 산업 육성

- 포로셴코 정권의 중점 육성 산업은 농업 및 식품가공업 것
 -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유럽의 빵바구니', '흑토(Chernozem)의 나라'라고 널리 알려져 있음.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양질의 토지와 높은 토지 가용율로 세계적인 농경국가라고 할 수 있음.
 - * 우크라이나는 캐나다,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지에 퍼져있는 전 흑토지대 30%이상의 흑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토지 현황>

우크라이나 영토크기	약 6000만 헥타르
농지 가용률	42.8%
거주지 비중	32.5%
흑토 비중	60%

- 제철·기계·화학 공업 현대화 투자 예정
 - 풍부한 매장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철강·금속산업 발달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서방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설비 투자확대를 기본으로 한 경기 활성화가 목표
 - IMF, WB 등을 통해 2년간 170억 달러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중 70억 달러는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으로 보여 산업 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것임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 현황

▶ 산업 분야별 생산 비중(2014.1-2)

산업	산업생산액	
	금액(UAH백만)	비중(%)
철강	28,134.7	16.5
농업	26,123.1	14.5
석유화학	6,775.8	4.0
기계	3,896.9	2.3

▶ 농업 및 식품가공 제조업

- 우크라이나 농산물 및 식품 산업 비중은 전세 산업비중의 1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생산량 기준으로는 15%를 차지하고 있음.
- 식품 가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전체 산업의 13%를 차지

▶ 철강·금속 산업

- 크리보리츠키 분지(Kryvorizsky Basin)와 돈바스 지역에 각각 철강과 석탄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 철강 산업은 우크라이나 2차 산업생산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외화 획득 채널이기도 함.

<세계 10대 철강생산국>

(단위: 백만 톤, %)

순위	국가명	2013년	2012년	2011년	증가율
1	중국	779.0	708.8	695.5	9.9%
2	일본	110.5	107.2	107.6	2.7%
3	미국	86.9	88.6	86.2	-1.9%
4	인도	81.2	76.7	72.2	5.8%
5	러시아	69.4	70.6	68.7	-1.7%
6	한국	66.0	69.3	68.5	-4.7%
7	독일	42.6	42.6	44.3	-0.1%
8	터키	34.6	35.9	34.1	-3.6%
9	브라질	34.1	34.7	35.2	-1.7%
10	우크라이나	32.8	32.9	35.3	-0.3%
합계		1,582.4	1,510.2	1,526.9	4.7%

▶ 석유화학 산업

-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주요 화학제품은 비료, 유·무기 화학제품, 타이어 및 인조고무제품, 화학섬유, 플라스틱 및 유리섬유제품, 사진재료 등임.
- 질소비료는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수출국을 자랑(수출 비중 8위)

▶ 기계 산업

- 중사기업만 120개에 달하며 생산량의 약 25%를 수출하고 있어 기계 산업은 우크라이나 핵심 기간산업의 하나임.
- 그러나, 구소련 당시 우크라이나는 일반기계의 주 공급 기지였지만 소련에서 독립한 후 판로가 막혀 생산량이 격감했고 대체로 구소련 시절의 낡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화된 대형기업과 양극화가 심화

□ 사회복지 및 재정 개혁

- 경제주도형 정책 명분하에 그동안 부의 편중 및 불균형적 재분배는 부정부패의 근원임을 인지, 대대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 추진 예상
- IMF 금융지원의 선제적 요구사항이기도 한 국가 재정구조 개혁은 신정부 수립이후 본격화될 예정
 -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기업 활성화 및 세수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간소화, 조세 감면, 산업별 법인세 차별화, 이전가격법 도입 등을 추진 중

2014년 과도정부 신규 국가 재정 계획안

구분	기존 계획	2014년	변화
세수	456억 달러	438억 달러	18억 달러(감소)
정부 차입	143억 달러	175억 달러	32억 달러(증가)
정부 해외차관	41억 달러	76억 달러	35억 달러(증가)
정부대출 상환	87억 달러	99억 달러	12억 달러(증가)
최소 급여	110 달러	110 달러	-
연금 기금	76억 달러	72억 달러	4억 달러(감소)

□ 국가안보 체계화

- 군수 산업 생산량을 확대하여 군사력 상승 뿐 아니라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와 포로셴코 당선자의 공동 의견임.
-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2014년 3월 22일, 무기 현대화 및 군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7억 달러 예산을 우선적 편성

II. 신정부의 과제

1. 경제 희생

□ 우크라이나 경제현황

○ 경제지표별 현황

구 분	'13 3분기	'13 4분기	'14 1월	'14 2월	'14 3월	'14 4월
GDP 성장률	△ 1.2	3.3	△ 1.1			-
소매 판매지수	△ 0.3	0.2	0.2	0.6	2.2	3.3
설비투자지수	22.5	2.81	△ 10.27	-	-	-
산업생산지수	1.0	1.8	△ 7.0			△ 1.0
외환보유액 (억 달러)	205	204	142	-	-	150
총 외채 (억 달러)		1,355	1,430	1,528		
환율(UAH/USD)	7.99	7.99	7.99	9.98	10.95	11.40

- 정치혼란이 6개월째 지속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음
 - 2014년에 들어 5월까지 GDP는 7% 감소하였고 이 기간 우크라이나 화폐인 흐리브나 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36%나 하락하였음

▶ 소매판매지수

- 2013년 소비지수는 급격히 감소추세였으나 하반기부터 소폭 상승
- 한편, 2014년 민간소비가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매판매지수도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 설비투자지수

- 설비투자지수는 2013년 3분기까지 점진적인 성장세였으나 2013년 11월말 경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크게 저하
- 2014년도까지는 설비투자지수 성장 둔화는 유지될 것이나 국제기관들의 경제 금융지원이 유지되면서 2015년부터는 성장세로 회복될 것

▶ 산업생산지수

- 경제악화로 제조업 투자가 줄면서 산업생산지수도 2013년도에 마이너스(-7%) 기록
- 2014년 2월까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산업생산지수도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4년 연간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환율

-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되자 2014년도에 들어 우크라이나 화폐인 흐리브나화의 가치도 달러 대비 36%나 하락하였음
- * 최근 환율(달러당): 7.99(11년~2013년 11월까지 고정 환율) 11.6(14. 6월 기준)

▶ GDP 성장률

- 2013년 한해 GDP 성장률은 0%에 그쳐
- 2013년 4분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4년 1분기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연간 GDP 성장률은 -4% 전후일 것이며 2015년부터 소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

국제기관 및 현지정부 경제지표별 전망

기 관	'14 GDP	'15 GDP	'14 인플레이션	'14 환율(UAH/USD)	'14 외환보유고
IMF	-5%	2%	16%	12.8('16:15)	192억달러
World Bank	-6%	('16)4%	15%	-	-
EIU	-3.9%	2%	14.7%	12.2	184억달러
현지정부	-4.6%	2.2%	8.6%	12	192억달러
UnitCredit	-6%	1%	-	-	-

□ 추진방향

- IMF 금융지원은 우크라이나 경제회복의 기회이자 부담으로 작용
 - IMF가 금융지원(170억 달러)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3가지 제시조건(가스 및 전력 소비세 현실화, 자율변동환율정책 채택, 재정예산 감축) 이행이 병행되어야 함
 - * IMF 금융지원 제시조건 중 환율자율변동은 2014년 2월부터 채택되었으며 가스 및 전력 소비세 현실화는 6월부터 실행(40% 인상)

- 경제회복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경제활동 환경개선선행이 필수
 - 우크라이나 반독점 협회 활동 강화와 독점 규제법 강화 예상
 - 해외 불법 자금 세탁 감시 강화와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예방 법적제도 마련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조세피난 사례 : 사이프러스

- 2012년 한해 사이프러스의 對우크라이나 직접 투자 금액(FDI)은 173억 달러로 우크라이나 전체 해외투자유치금액의 33%를 차지



- 이는 조세 회피를 위해 전통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들이 사이프러스를 자금 세탁처로 이용해 온 것에서 기인함
 - 사이프러스의 예금 총액 중 30% 이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자금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전통적인 자금 세탁처로 이용되어 왔으며, '13년 러시아에서 '자금세탁 금지법'을 제정함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우크라이나의 해외투자총액은 68.9억 달러인데 이중 67억 달러가 대 사이프러스 투자금액
 - 이 역시 우크라이나 과두 재벌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FDI를 통해 자금을 우회 세탁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사이프러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금 역외 지역 (offshore jurisdiction)으로 오프쇼어 बैं킹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
 - 사이프러스의 명목 GDP가 약 240억 달러인데 반해 외국계 예금 규모는 1200억 달러라는 점에서 오프쇼어 बैं킹 산업 의존도를 알 수 있음

2. 동부지역 분리주의 해결

□ 동부지역 갈등 진행 현황

- 도네츠크 주 슬라반스크를 중심으로 러시아계 주민의 비중이 높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3개주(도네츠크, 루간스크, 하리코프)에서 분리주장, 유혈사태 확대로 내전 양상
 - * 5.30 까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대 테러 작전으로 500명 이상 사망 추정
- 2014년 4월 7일, 도네츠크 주에서 친 러시아 시위대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선포 - 러시아에 군부대 파견 요청 등 갈등 심화
- 2014년 5월 11일,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에서 분리 독립 주민투표 단행

투표 결과	도네츠크 89%, 루간스크 96%가 독립 찬성
각국 반응	러시아: 크림의 전례처럼 곧바로 동부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투표 결과는 존중
	우크라이나 정부 및 서방측: 불법 선거에 따른 무효라고 주장



- 동부 지역은 크림과는 달리 러시아에 명분이 없으므로 러시아 귀속은 힘들 것으로 예상
 - 러시아가 동부 지역을 병합할 경우, 서방의 정치·외교적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므로 러시아의 적극적인 병합 움직임은 없는 상황
 - 또한 미국의 (對이라크, 시리아 등)일방적 무력행사와 전횡을 비판해왔던 푸틴 대통령의 정당성도 훼손

러시아가 바라보는 크림반도(동부지역과 다른 점)

- 크림은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
 - 제1차 러시아-투르크 전쟁(1768-1774)에서 오스만 제국을 이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차지
 - 제2차 전쟁(1787-1792)도 승리한 러시아는 아시 조약을 체결, 크림반도를 공식적으로 제국에 병합
-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게 선물로 제공한 것
 - 1954년 소비에트 연방국은 편익상(당시 서기장은 우크라이나 출신 후루시초프)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 영역에 편입
 - 1991년 소비에트연방 해체로 러시아는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 실패
- 크림반도는 러시아민족의 땅
 - 크림반도의 주민 67%는 러시아인

□ 전망

-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세력에 대한 정부군의 강경대응 예상
 - 취임 직후 전투기, 헬기 등 군사장비 동원하여 본격적인 진압작전 개시
 - 포로셴코 대통령은 교전 상황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모든 교전을 끝내겠다. 라고 선언하여(6. 8. 발언) 정부군의 총공격이 예상됨
 - 또한 동부지역에 ‘민간인 탈출로’를 설치하여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것이라고 밝힘(6. 10. 발언)
 - 무장 분리주의자들의 저항력에 따라 소형 로켓 등의 중대형 무기 동원할 방침으로 많은 인명피해 예상

3.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갈등 요소

○ 영토 분쟁 및 민족적 갈등

- 영토·민족·언어 갈등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위적 입장과 소비에트 연방국이라는 틀 안에서 적은 편이었으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회의주의와 유럽 지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과 동부지역 분리주의 분쟁으로 갈등 표출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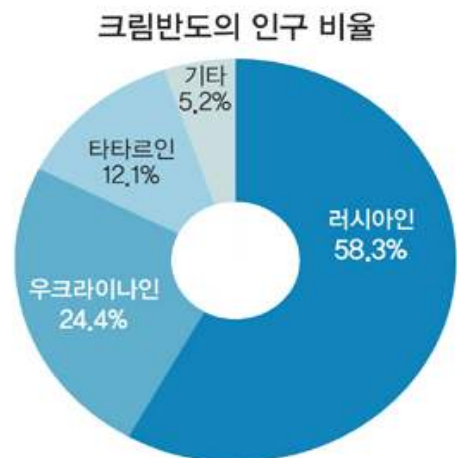
- ▶ 야누코비치 축출 이후, 러시아는 주민보호를 명분으로 크림반도에 군대 투입, 이후 크림 자치주 주민투표를 거쳐 크림반도 합병

*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3.16) 결과, 96% 찬성으로 러시아 합병조약 서명(3.18)

- ▶ 크림 사태에 대해 미국과 EU는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및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진행

- ▶ NATO는 폴란드, 흑해 등에 함대 및 전투기를 통한 무력대응 가능성 제기

- ▶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 후 주민들의 연금 및 임금 인상 시행



자료: 우크라이나 2001년 인구조사, WSJ

○ 에너지 의존에 얽힌 경제적 이해관계

- (가스로 인한 갑을 관계)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상대적으로 자원이 적은 나라로 절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의존국임. 그동안 러시아는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가스 압력으로 표면화시켜왔음.
- (내부 개혁 의지 부족)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을 무기화 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적인 개혁의지가 그동안 적었다는 것이 국내외 일반적인 평가임.

러-우 가스분쟁 약력

▶ 2006년 1차 가스 분쟁 발생

- 우크라이나는 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 가스 절대 의존
 - 국내 가스 소비의 70% 이상 수입, 러시아 가스의 유럽 수출 80% 유통
- 2006년 초 러시아의 일방적 가스가격 인상 통보(천 m³당 50달러 → 230달러)
- 당시 95달러로 합의했으나, 2004년도에 설립된 우크라이나 가스 유통기업 'RosUkrenergо'의 에너지 공급 수익률 논란 발생
 - * RosUkrenergо 지분율 : 러시아 가스프롬 50%, 우크라이나 경제인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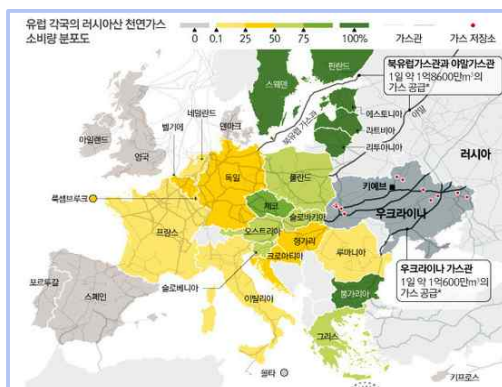
▶ 2009년 2차 가스 분쟁 발생

-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회사 나프트가스의 가스 비용 체납을 이유로 러시아에서 13일 간 가스 차단
 - * 러시아의 나프트가스 지분 획득 및 정치적 모티브의 일환이라고 유럽은 주장
- 신규 10년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 일단락
 - * 계약 조건 : ① 2009년까지 유럽공급가의 20% 할인율을 적용하되 2010년 1월부터 할인 혜택 종료, ② RosUkrenergо 중계 배제와 동 회사의 대 나프트가스 채무(6억 달러) 포기

▶ 끝나지 않는 가스 분쟁

- 연간 가스 수입 쿼터 부족분 벌칙부여 계약사항을 삭제하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에 불구, 2012년 우크라이나 가스 수입량이 전년대비 24.5% 가량 줄자(329억 m³) 러시아 측은 가스공급 미수금(70억 달러) 요구
 - 이에 우크라이나는 유럽보다 높은 단가(천 m³당 500달러)를 적용받고 있으며 연간 수입량 하한선인 520억 m³를 지킬 의무가 없다며 반박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관 현황>



□ 러시아 관계성 회복의 필요성

- 러시아와의 갈등 지속은 지정학적으로 불리
 - 포로셴코 신정부는 친 서방을 지향할 것이나 세계 경제 비중이 0.2%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로서는 강대국 간의 이해충돌이 첨예할수록 안보적·경제적으로 악화될 것
 -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러시아의 EEU(유라시아연합) 창설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경제적 압박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큼.
 - 한편, 우크라이나 NATO 가입은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에 불가능이 예상됨
- 동부지역 분쟁,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 커
 - 2014년 3월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의 정치 및 군사적 중립화와 자치연방제 채택, 러시아어 공용어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동부지역의 신생국 창설 유도일 것임. 우크라이나 연방제 채택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러시아는 동부지역을 신생국으로 창설 하도록 유도할 것인데, 이는 NATO에 대한 견제와 EEU(유라시아연합) 창설을 위한 전략적 방법일 것임.
 - 러시아는 동부지역 분쟁의 이유로 우크라이나 연방제를 유도할 것이며 동부지역을 서방과의 전략적 완충지로 남겨둘 가능성이 큼.

* 서방국 사례 : ① 그린란드 연방제 채택 : 2009년 그린랜드는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 모든 권한을 그린랜드가 행사하고 국방·외교 결정권만은 덴마크 중앙정부에서 위임, ② 핀란드 중립정책 : 핀란드는 지정학적 위치(러시아 국경 공유)로 현재까지 NATO 비가입국으로 중립정책 견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urasian Economic Community)

- EU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주도로 구소련권과 협력하여 설립된 국제 협력기구
 - 1995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 간 관세동맹 출범을 계기로 기틀 마련
- EEC는 초국가적인 기관으로써 전체 유라시아 지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관세 동맹과 통합 경제 구역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맡고 있음.
- 공동체 내에서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며 회원국 간 경제 강화, 조화로운 발전·화해·협력 도모

<회원국 현황>

회원국	가입년도	준 회원국	가입년도
러시아	2001년(창설주도)	몰도바	2003년
벨라루스	2001년		
우즈베키스탄	2001년(자격정지)	아르메니아	2002년
카자흐스탄	2001년		
키르기스스탄	2001년	우크라이나	2002년
타지키스탄	2006년		

- 2013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EEU 정상회담 주최하여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러시아권 국가들과 EEU 창설 논의
 - 이 회담에서 2014년 5월까지 EEU 창설 조약을 체결하고, 2014년 말까지 가입국의 의회 비준 절차 통과, 2015년 1월 정식 출범하는 데 합의
- 통합 화폐 사용에 대한 논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고차원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고 고차원의 지역 통합이 이루어 졌을 때 시작될 것이며, 늦어도 2025년 전까지는 논의를 완료하고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화폐인 'Altyn'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측에서 이러한 통합 화폐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 CIS국가의 경제블록화 >



□ 포로셴코의 외교노선 전망

○ 중도 실용주의 노선 채택

- 포로셴코 신임 대통령은 러시아와 대화하지 않고 정국을 풀어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 적극적인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 높아
- 한편, 러시아 가스가격 인상(485.5달러)요구는 적극 대응

* 나프트ogas(우크라이나 가스유통공사)는 가즈프롬(러시아)에 가스가격 관련 소송 중으로 최근 노르웨이의 Wikkborg사가 법정소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발표. 동 로펌 고용 비용은 130만 유로에 달함.

○ 크림 반도 건이 주요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어

- 러시아 나름의 명분은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무력 병합한 사실은 국제적 사회에서 명백한 사실로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위적 입장을 이용할 것
- 그러나 병합된 크림을 탈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문제 재기를 통해 타협점(가스, 무역 제재 등)을 얻을 것

4. EU 가입 추진

□ 우크라이나 EU 편입 의지의 배경

- (역사적 배경) 우크라이나 역사적으로 서쪽은 유럽의 영향(폴란드 지배), 동쪽은 러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아온 국가로, 우크라이나 동서의 갈등은 이러한 배경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유럽 경제권 확대와 러시아 영향력에 따른 역사적 트라우마(2차 세계대전, 대기근, 체르노빌 사고 등)로 인해 유럽을 더욱 지향하게 됨.
- (경제적 배경)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형제국이라며 균형적인 관계보다는 우위적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경제에 영향력(가스 압력, 무역 제재 등)을 행사해왔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을 것으로 보임.

- (사회적 불만)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사실상 소비에트 붕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인위적인 독립에 불과하여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의 구심점이 될 만한 엘리트층이 부재하였음. 이러한 요인은 러시아 자본주의 경제 도입과정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결국 역사 깊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민주화의 꽃을 피운 유럽을 동경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친 서방 대통령 당선으로, EU 편입 가속화

- 친 서방 성향이 강한 포로셴코 당선자의 EU 편입 추진 가속화 전망
 - 포로셴코 당선자는 동유럽에 인접해 있는 지역 출신이고, 경제인 출신으로서 서방 경제인들과의 관계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EU와의 정치적 협력은 난망
 - 우크라이나의 對EU와 對러시아 교역 비중이 유사하여 러시아의 관계소원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EU 교역 확대를 통해서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EU와의 FTA는 적극 추진될 것
 - EU의 대대적인 금융 지원 및 셰일 가스 개발 및 공급노선 다각화 추진 등 EU-우크라이나 경제협력 확대 예상
 - 2014년 3월, EU와의 정치적 협력 안은 서명되었으나 러시아의 견제가 장기화될 것이고 유럽 자체도 우크라이나의 유럽화에 대해 회의적 반응(독일)을 보이고 있어 단 기내 EU 회원으로 가입될 가능성은 낮음.

[우크라이나의 對러시아 및 EU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수출		수입	
	러시아	EU27	러시아	EU27
2010	13,431	14,594	22,739	22,823
2011	19,820	20,350	29,132	29,093
2012	17,631	18,194	27,418	30,261
2013	15,065	16,715	23,234	27,001
2014(1~3월)	2,721	4,941	4,016	4,982

자료원: WTA

5. 부정부패 척결

□ 부정부패 현황

-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 2013년 부패지수 공공 분야 순위에서 우크라이나는 177개국 중 144위이며 국가 투명도는 10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하여 유럽 최저 수준임
 - * 비교 : 2013년 부패지수 한국 46위, 러시아 127위 (출처: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 부정부패의 원인은 부의 불균형 분배와 법적 체제 미비
 - 소비에트 붕괴에 의한 독립은 결국, 투쟁에 의한 독립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책임감과 민족의식이 다소 부족하게 된 배경이 됨
 - 민주화 체제를 독자적으로 받을만한 시간의 부족으로 러시아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선진화된 법적 체제 구축 미비
- IMF 금융지원의 중요 조건은 부정부패 척결
 - 국제 금융지원 수행기관인 WB는 IMF가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부패척결 조건은 규제철폐, 에너지 개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
 - *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침략이 아니라 부정부패라고 블룸버그 분석(3월 31일)
- 미국의 부정부패 척결 지원 확대 약속
 - 5월 대선 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지원기로 약속한 정치경제 개혁 무상 지원금의 일부임.

* 사례

“우크라이나 진출을 시도했던 2004년 이후 만났던 수많은 고위관료들이 이케아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이유로 번번이 뇌물을 요구했다” 이케아 지사장 렌나트 달그렌 증언

- ▶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Ⅲ. 대선에 따른 기대와 평가

1. 국내 반응

□ 우크라이나 경제계 반응

- 대선 결과 및 포로셴코 평가
 - 기업가 출신 대통령 당선에 긍정적인 반응(특히 수출입 위주의 기업)
 - 대선후보 중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
- 기대 사항
 - EU 가입 공약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이행
 -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우크라이나 정치계 반응

- 티모셴코 조국당 대표
 - 티모셴코 대통령 후보는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의 결정이고 포로셴코 당선자를 축하하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한다고 강조
- 랴쉬코 대통령 후보의 축하 및 기대
 - 국민들은 러시아와의 타협 및 동부지역 안정을 제 1순위로 원하며, 이런 부분에서 포로셴코 당선자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 포로셴코 당선자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
- 야체뉴크 현 우크라이나 총리
 - 포로셴코 당선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2005년 오렌지혁명에 의한 국민염원이 정치적 갈등 (유셴코 전 대통령과 티모셴코 전 총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상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첨언

□ 우크라이나 언론 반응

- 새 정부의 선결과제는 에너지 문제 해결
 - 포로셴코 당선자의 주요 공약중인 에너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기대
 - 러시아와의 가스 가격 협상, 셰일가스 개발, LNG 터미널 건설, 유럽 가스 역수입 과제 실현에 기대 높아

언론이 지적하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문제

- ▶ 러시아 가스 장기 부채 (러시아측 주장 규모 : 15억달러)
- ▶ 우크라이나 내 셰일가스 개발사업 일정 차질
 -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 해외 기업(Shell, Chevron)에 위탁 중
- ▶ 크림 러시아 병합으로 인한 크림 인근 흑해 매장 가스·석유 손실
- ▶ 우크라이나 통과 가스량 감소
- ▶ 우크라이나 석탄 채굴의 수익성 문제
- ▶ 자국 석유 생산 부족
- ▶ 에너지 효율 증대 및 기타 달성과제들의 상세 계획안 부재

- EU 가입은 다소 부정적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회원국(중부유럽국) 수가 적고 역내에서도 EU 회의주의가 팽배해 우크라이나 가입 추진이 속도를 내긴 어려울 듯
- 러시아와의 관계회복 희망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경제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러시아 관계 회복은 필수라고 강조
- 우크라이나 기득권층과의 화합 필요
 - 현재 우크라이나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제한적이고 포로셴코 당선자가 무소속 출신이기에 정치계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향후 정책 추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

2. 주요국 반응 및 경제적 영향

가. 러시아

□ 대선 결과에 대한 반응

- 대통령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힘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협조 의사 있다.”라고 밝힘
- 동부 지역 무력시위 강경 진압 비난
 - 동부 지역의 강경진압은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무력 진압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의 무력 단체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반응
-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모호한 입장표명은 미국 및 EU 경제제재를 의식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어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희망 가운데) 러시아도 진지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러-우크라이나 가스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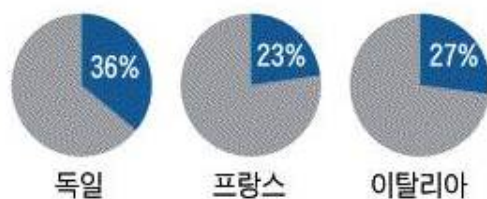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할인 내역

- 2024년까지 러 함대 크림반도 주둔에 대한 30% 할인
- 러 함대 흑해 주둔 이용료 지불 대가로 1천 입방미터(m^3)당 100달러 할인

- 러시아, 對우크라이나 가스 가격 인상(4.1일)
 - 푸틴과 야누코비치(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에 합의(‘13.12월)된 할인 혜택(30%)과 크림 반도에 러 함대 주둔 비용 혜택(100달러) 취소에 따른 것
 - 268.5달러에서 485.5달러로 인상(81% 인상된 가격)
 - 우크라이나, 인상된 가격 수용 불가 표명,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중단

- 러시아, 유럽 지도자들에게 서한 “우크라 가스값 안 낮으면 공급 중단” 경고
 -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EU 18개국 지도자들에게 서한 발송 (4. 10)
 - 우크라이나의 가스 채납액 *22억 3,800만 달러 해결을 위한 긴급 조치 요청
 - 채납액 낮지 않으면 향후 대금 지급 시에만 공급하는 선지급제 전환 경고
 - 채납 상황 불능 시 선불 판매 가능 조약 근거로 제시 (2009년 체결)
- * 반정부 시위 시작 시점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 초까지 가스 대금은 45억 달러
- 우크라이나 신정부가 출범한 뒤 꾸준히 EU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가까운 시일 내에 가스 분쟁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만날 계획은 없다고 드미트리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 (4. 10)의 발언
- 결국 러시아가 가스대금 체불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6. 16)
 - 유럽은 전체 가스 소비량의 약 33%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가량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수입 중(13년 기준)
 -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은 “유럽에는 정상적으로 가스를 보낼 것” 이라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가 강제로 가스 밸브를 열고 빼간다면 러시아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주된 전망임
- * 2006년 러우크라 1차 가스 분쟁 때도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가야하는 가스를 무단으로 빼낸 적이 있음

유럽 주요국 러시아 수입가스 의존도



* 사진 출처: 조선일보

유럽으로 오는 러시아 가스관



* 사진 출처: 내일신문

- 이에 EU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산 가스 역수출을 제안하였으나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CEO는 이는 半사기라며 예의 주시하겠다고 대응함(6. 16)
- 가스 공급 중단 하루만에 우크라이나 가스관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원인 규명이 불명확한 상황으로 사태가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음(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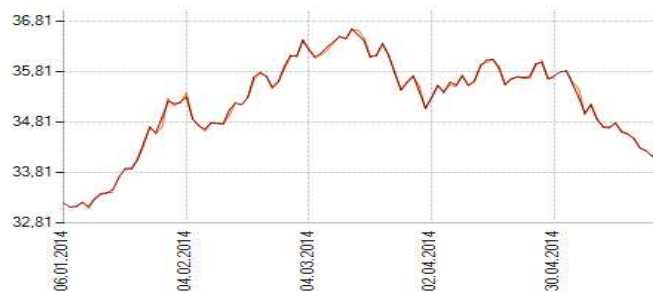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전망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 경제 악화 현황

- ▶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하락(8%)과 주가 하락(13%)
- ▶ 채권발행과 은행권 발행을 위한 자금조달 악화
- ▶ 2014년은 러시아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

- (환율) 크림반도 합병 후, 달러당 35루블의 고점에서 정체를 보이던 환율은 우크라이나 대선을 전후로 사태 진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
-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환율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달러-루블 환율 추이(2014년 1~5월)>



* 최근 3개년 평균환율(달러당) : 29.32('11) → 30.98('12) → 31.81('13), → 33.9('14 전망)

- (FDI) 2014년 1분기의 러시아 해외투자 순유출액은 약 500~600억 달러로 2013년도의 전체 유출액 수준이며, 연간 유출액은 1,0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러시아 경제개발부)
- (경제성장률) 2014년 1분기의 경제 성장률 역시 0.8%로 당초 예상치인 2.5%를 크게 하회
- 블룸버그, 러시아의 경제침체 확률을 최대 50%로 전망하면서, 자본 유출 및 내수소비 감소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
- 러시아 경기침체 영향은 EU와 동유럽 국가, CIS 등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전망이며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新동진정책’강화

- (중국) 서방제제 및 우크라이나 이탈로 인한 러시아의 대안 파트너로서 위상 강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14. 5) 이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본격화

[푸틴 訪中 (5.20~21)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동향]

- 천연가스 공급 확대(향후 30년간, 총 4,000억 달러 규모)
- 장거리 항공기 공동 개발
- 창청 자동차의 러시아 현지생산공장 (톨라 주) 건설
 - * 약 5억 2,000만 달러, 2017년부터 연간 최대 15만대의 자동차 생산
- 시부르(러)-시노펙(중) 상하이에 합성고무 생산공장 합작투자
- 루블-위안화 결제 및 합작사업 규모 확대 (2,000억 달러)
- 아무르 강, 화물운송 교량 건설
 - * 수송거리 700km 단축, 연간 2,100만 톤의 운송 기대

- (북한) 나진-하산 철도 개통 (‘13. 9) 이후, 나진항 주변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추진
 - * 북한에 대한 차관 탕감(총 110억 달러) 및 루블화 무역결제 합의(‘14. 4)
- (일본) 對러시아 제제동참 및 영토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정치외교 관계는 좋지 않으나, 에너지 확보를 위해 관계 재정립 움직임
 - 러시아는 일본의 풍부한 자본과 앞선 기술력 보유국임을 주목하고 북극해에서 추진할 에너지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 푸틴 대통령, ‘일본 초청 있을시, 하반기 방문 검토 가능성 시사 (5. 29)
- (한국) 극동러시아 지역개발에 있어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 드미트리 트레닌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소장 “러 정부는 한국을 러시아에 투자해 줄 국가로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

나. 미국

□ 대선 결과에 대한 반응

- 오바마 대통령은(5. 27) 포로셴코 당선자에게 당선 축하 전화
 - 대선결과를 환영하며 혼란 정국 상에서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러낸 우크라이나 국민과 당선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
- 벤 로즈 美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위해 미국은 아래와 같이 폭넓은 아젠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①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
 - ②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성장을 재건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원
 - ③ 긴장완화를 위해 우크라이나 내부의 대화와 화합에 대한 노력 지원
 - ④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촉진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유럽의 동맹국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
-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미래 우크라이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며 친서방 성향의 당선자를 환영
 - 포로셴코 당선자에게 어렵게 얻는 자유와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업무가 주어졌다고 평가(**WSJ**)
 - 러시아와 깊은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있는 포로셴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완화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전망(**New York Times**)
 - 당선자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원하고 있음에 대해 러시아에게 보내는 분명한 시그널(**US News**)
- 현지 주요 연구소들은 포로셴코가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로 경제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뽑으며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정치적 성과를 사회 안정으로 연결시키려면 경제 문제를 해결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방으로부터의 막대한 지원이 요구됨(**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IMF와 합의한 경제개혁은 우크라이나의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만연한 부패를 종식시키는데 필수적인 반면 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공공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함(**Brookings Institution**)

□ 美, 동·중유럽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예정

- 오바마 대통령, 포로셴코 당선자에게 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물자 지원 약속
 - 최초의 군사적 지원 제안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는 동·중유럽 국가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
- 동·중유럽 군사지원 확대 위해 美 연방 의회에 10억 달러 규모의 군비 지출 승인 요청
 - 미국 해군과 NATO군의 합동연습,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에 대한 군사지원 등에 사용 될 예정

□ 美-러 단기간 내 관계 개선은 불투명

- G7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對러시아 추가 경제제재 요구
 - 이번 회의는(6.4. 브뤼셀) G8 의장국인 러시아 주최로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를 배제한 7개국 회의로 개최
 - 지난 회의(3.24. 헤이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 할 경우, 기간산업을 대상으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
-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깨진 신뢰를 재건할 만한 행동을 요구
 - 푸틴 대통령이 군대를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철수시키고 親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진정시켜 우크라이나 대선을 인정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
 - 러시아가 '책임 있는 행동(responsible behavior)'을 한다면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quite some time)'이 걸릴 것이라며 경고

□ 셰일가스의 개발지원으로 러시아 견제

- 미국은 독보적인 셰일가스 발굴 기술력을 가지고 전 세계 가스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견제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음.
 - 유럽국가에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해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계획

다. EU

□ 대선 결과에 대한 반응

-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포로셴코 대선 당선자에 축하 전화,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는 우크라이나 통일을 위한 분명한 의지 천명”이라고 평가
- 프랑스 올랑드 (Francois Hollande) 대통령, 포로셴코 대선 당선자에 축전, “동부 불안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치러진 대선 결과 환영하여 당선자를 지지하겠다”라고 언급
- 영국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 노르망디 작전 기념식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고 프로셴코 당선자를 인정하고 협력하라”고 강조

□ EU의 경제적 주요 파트너,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시급

- 러시아 대외 무역에서의 주요 파트너인 EU로서는 對러시아 경제 제재는 EU 경제에도 부담일 수밖에 없음
 - EU는 2013년 기준 수출입 부분 1위를 차지함
 - 주요 수출품은 원유와 천연가스가 주를 이루고 수입품은 국별 차이는 있으나 의약품과 자동차(부품, 트랙터, 굴삭기) 등이 주요 품목임.

[러시아의 대외교역에서의 EU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수 입			수 출		
순위	국가명	러시아의 수입액	순위	국가명	러시아의 수출액
1	EU27	124,128	1	EU27	153,889
2	중국	51,689	2	터 키	23,519
3	미국	16,044	3	우크라이나	21,845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013)

** 2013년 8월 EU 가입한 크로아티아는 2013년 기준에서 제외하였음.

[러시아의 국별 대외무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수 출		
순위	국가명	러시아의 수출액
1	네덜란드	37,225
2	터 키	23,519
3	우크라이나	21,845
4	이탈리아	21,256
5	독 일	20,241
6	중 국	16,641
7	영 국	12,319
8	라트비아	10,108
9	일 본	9,627
10	미 국	7,893

수 입		
순위	국가명	러시아의 수입액
1	중국	51,689
2	독일	35,536
3	미국	16,044
4	우크라이나	15,050
5	이탈리아	13,843
6	일본	13,165
7	프랑스	11,941
8	대한민국	9,842
9	영국	7,881
10	폴란드	7,663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013)

[러-EU주요국의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명	러 주요 수출품목			러 주요 수입품목		
	순위	품목	금액	순위	품목	금액
네덜란드	1	원유	27,071	1	의약품(백신제외)	486
	2	니켈	3,280	2	트랙터	362
	3	알루미늄	1,249	3	치즈·응고우유	279
이탈리아	1	천연가스	9,337	1	의약품(백신제외)	883
	2	원유	8,153	2	주방기기	597
	3	철강 반제품	1,226	3	가구	354
독일	1	천연가스	12,702	1	자동차	2,855
	2	원유	2,515	2	의약품(백신제외)	2,331
	3	구리	622	3	자동차 부품	1,724
영국	1	원유	6,006	1	자동차	2,385
	2	천연가스	3,700	2	의약품(백신제외)	678
	3	석탄	1,734	3	자주식 굴삭기	435
프랑스	1	원유	3,608	1	비행기	1,993
	2	천연가스	3,096	2	의약품(백신제외)	1,240
	3	석탄	120	3	향수	41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013)

- [EU 주요국의 러시아 가스 의존율]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40

□ 향후 전망

- EU는 이제까지 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는 EU 내 성장과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
- 현재 추가 제재를 검토하면서 자-중-강의 3가지 옵션에 대한 각 각 EU 회원국 내 경제 영향에 대해 조사
 - * 결과는 기밀 사항으로 각국에 대한 결과를 해당 정부에 개별적으로 통보한 상황

[EU의 對러시아 추가제재 검토 옵션]

옵션 1	무기 거래 금지와 다이아몬드, 모피 또는 캐비아(caviar) 등의 럭셔리 제품과 타이어나 퇴비 등 특정 산업용 제품수입 제한, 유럽 내 러시아 투자 프로젝트 허가 지연 등이 포함
옵션 2	추가 제재, 석탄 수입 금지 및 모든 산업용 가공 제품 수입 금지, 특히 군사용 기술 관련 수출입 금지, 자본 거래 금지, 선박 및 도로 교통 제한
옵션 3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 완전 금지, 러시아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 EU는 6월 중 우크라이나와의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심화·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 (5. 30)한다고 언급
 - 포로셴코는 친 EU 기조를 유지하기로 밝혔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서명에 대해서는 뚜렷한 약속을 하지 않은 상황
 - 향후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법적으로 유라시아 경제연합 (EEC)에는 더 이상 참가할 수 없게 됨

* CIS 경제 영향

-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주도 관세동맹 회원국들로 러시아의 경제악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장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등은 러시아 외화벌이 노동력 파견국으로 외화수입에 차질이 빚을 것

IV.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현지진출기업 반응

□ 한-우 경제규모 작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2013년 기준 우크라이나는 한국 대외 교역 규모 순위 62위로 한국 교역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정국 불안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환율급변과 소비위축이 현지 기업 활동에 영향

* 우크라이나 진출 한국 기업 피해 현황

우크라이나 진출한 한국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그간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정국불안에 대해선 대처 능력이 축적되어 있음. 다만 이번 우크라이나 현지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한국 수출 결제를 지연시키고 소비침체로 이어져 자동차 및 전자제품과 같은 주력 상품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

2. 기회 요인

□ 신정부 수립

- 5월 25일 대선이 무사히 치러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신정부 수립이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

□ 강대국 이해충돌에 따른 중도실용주의 채택 가능성

- 자국 내 지속적인 강대국 간의 이행충돌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강대국에 대한 회의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으로는 중도주의를, 실물경제는 러시아와 EU 제품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찾는 등 중도 실용주의를 견지(역 샌드위치 현상)할 가능성이 있음.

□ EU 가입 및 FTA 추진

-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가입 및 FTA추진은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그러나 동·서부유럽 시장을 겨냥한 산업투자 및 생산성 증가는 한국의 산업 설비 및 기계, 산업 원부자재(합성수지, 아연도강판 등)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EU 가입 추진에 따른 중소형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점진적 철폐로 인해 자동차 수입 증가 기대
 - 2013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산 차량보호를 위해 중소형 수입차량 관세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면서 한국 차량 수입이 감소하였음
 -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행하기로 한 수입자동차 세이프가드 철폐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

□ 서방 금융지원

- 서방 주요 금융 기관에서 우크라이나의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IMF에서 2년간 170억 달러, WB에서는 30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현재 약속한 상태임.
- IMF 지원금 중 32억 달러가 즉시 지급되고 이 중 20억 달러 가량이 러시아에 체납된 가스대금 지급에 사용될 전망이며, 차후 지급은 우크라이나의 월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임
 - * IMF 구제금융 지원 조건, 재정 긴축과 세금 인상 등 경제구조 개혁 이행
- WB에서 지원되는 금융지원 중 2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내 인프라 및 민간부분 개혁에 쓰일 것이며 10억 달러는 정부 예산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될 예정이라고 함. (특히 WB는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에너지산업 구조조정, 부정부패 척결, 저소득층과 빈곤층 구제 사업 등을 우선시 해달라고 당부)

3. 위협 요인

□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래의 국가전략 선택지는 자국의 국가전략 방향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정책 기조/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우크라이나 신정부가 해결할 난제**

-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및 개선
- 국내 정치적 안정성 확립
- 경제성장 동력과 대내외적 투자환경 조성

- 신정부의 유럽연합과의 상호 협력 진행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특히 크림반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경제회복에 필수적인 에너지 수급문제 상호 합의)이 지연되고 동부 지역 갈등이 지속되면 포로셴코 정부의 경제회복 추진력이 힘을 얻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연 시 예상되는 경제·통상 상황**

- 민간소비 및 산업투자 지속적인 하락세 예상
- 對우크라이나 한국 수출 20% 감소 예상

* 2014년 1월~4월 對우크라이나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33%가 감소하였으나 신정부 수립에 따라 소비심리 상승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 예상

- 군사적,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親서방 정권에 대한 경계 및 무력 도발 가능성 존재

□ 유럽 국가들의 ‘EU 회의주의’

- 장기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EU 회의주의가 우크라이나 EU 편입에 대한 모멘텀을 상실하는 계기로 작용 가능
- 러시아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EU 회의주의가 확산된다면 우크라이나가 장차 강대국 성장 파트너를 잃어 안보 및 경제에 심각한 타격 가능성
- *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위기 여파 등으로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와 비판의 분위기

4.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방안

□ 한-우 교역

-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對 우크라이나 한국 수출은 2013년 전년대비 45% 하락, 2014년(1~4월)은 같은 동기 대비 33% 감소하였음.
- 對 우크라이나 한국 수입은 2014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한-우크라이나 교역 사상 최초로 對 우크라이나 교역수지 마이너스 기록
* 1~4월 기준 교역수지 : - 2억 1664만 달러)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입현황 (단위: US\$ 천, %)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1	1,022,531	43.2	732,833	-6.0	289,697
2012	1,149,453	12.4	757,841	3.4	391,627
2013	634,596	-44.8	448,047	-40.8	186,549
2014(1월~4월)	144,616	-33.3	361,260	239.0	- 216,644

* 자료원 :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

-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첫째로 우크라이나의 경제 악화에 따른 소비탄력성이 큰 제품 소비 감소(자동차, 전자제품)가 있고, 둘째로 우크라이나 산업설비투자 저하로 산업기기 및 소재 수요 감소(기계, 합성수지, 기타 기계부품)에 있음
- 2014년 對 우크라이나 한국 수입은 우크라이나 *사료/곡류 및 산업원자재(나프타, 합금철 등)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농산물)세계 6위 곡물 수출국, 곡물 수출 물류기반시설 투자 기회

- 해바라기유 수출(세계 1위), 밀(세계 2위), 옥수수(세계 3위)
- 국제 곡물메이저(Cargill, ADN, Dunge, LD) 전부 진출(1990년대)

* 對우크라이나 수입은 현지의 수출규제, 현지 기업의 역외 결제 방식 선호 등의 이유로 연간 실적이 균일하지 못하며 품목별 실적도 일관지도 못함을 참고해야함.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10대 수출품목

(단위: US\$ 천,%)

순위	품목명	2013년		2014년(1월-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634,596	-44.8	144,616	-33.3
1	승용차	219,389	-32.3	45,867	-37.9
2	합성수지	44,020	-46.1	9,644	47.0
3	아연도강판	24,433	-11.1	8,985	22.8
4	자동차부품	40,908	-3.1	8,878	0.1
5	냉장고	22,491	-55.4	8,007	-28.4
6	기타플라스틱제품	19,911	2.2	4,800	-23.3
7	편직물	16,397	33.8	4,261	-53.7
8	타이어	16,375	-46.1	3,571	5.3
9	인쇄용지	4,615	-0.8	3,319	166.8
10	의료용전자기기	8,658	-44.3	2,427	-17.4

자료원: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10대 수입품목

(단위: US\$ 천,%)

순위	품목명	2013년		2014년(1월-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448,047	-40.9	361,260	239.0
1	사료	209,392	28.8	229,571	673.7
2	나프타	41,604	24.9	47,703	736.9
3	합금철	24,513	-79.8	23,529	102.3
4	강반제품	25,390	-63.1	22,476	161.5
5	곡류	333	-99.8	14,529	-
6	안료	10,961	3.1	3,629	14.3
7	철강관	4,958	33.2	3,453	182.6
8	박류	2,187	314.7	2,811	231.8
9	기타금속광물	5,768	-37.9	2,098	-3.0
10	기타비철금속제품	806	-57.6	1,896	1,085.0

자료원: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

□ 對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 IT,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분야에 많은 기회
 - 세계은행과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는 농업, IT,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분야에 집중적으로 금융 지원 예정
 - 한국은 IT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분야 경쟁력 보유
 - 세계은행, EBRD등은 한국기업의 투자계획을 받기를 원하고 있음
- 기술 협력을 통한 양국 동반 성장
 - 우크라이나는 우수한 기초 과학 기술을 보유
 - 투자 부족으로 상용화되지 못한 기술 발굴, 한국의 상용 기술 개발 능력을 결합하여 신 성장 동력 창출
 - 양 국가 WIN-WIN 분야로서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 예상

* 우크라이나는 세계 9위 항공산업국가/ 세계 7위의 우주산업국가

- 항공기의 설계부터 엔진 등 각종 부품의 개발, 조립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하여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풍부한 티타늄 보유로 많은 나라로부터 위성 발사체 제작 주문을 수주하여 2012년까지 총 128개의 위성발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 보유

- 흑해경제권 교역 확대를 활용한 진출 판로 모색
 - 흑해경제권은 러시아·중앙아시아 경제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견주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흑해연안국 협력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됨

☞ 흑해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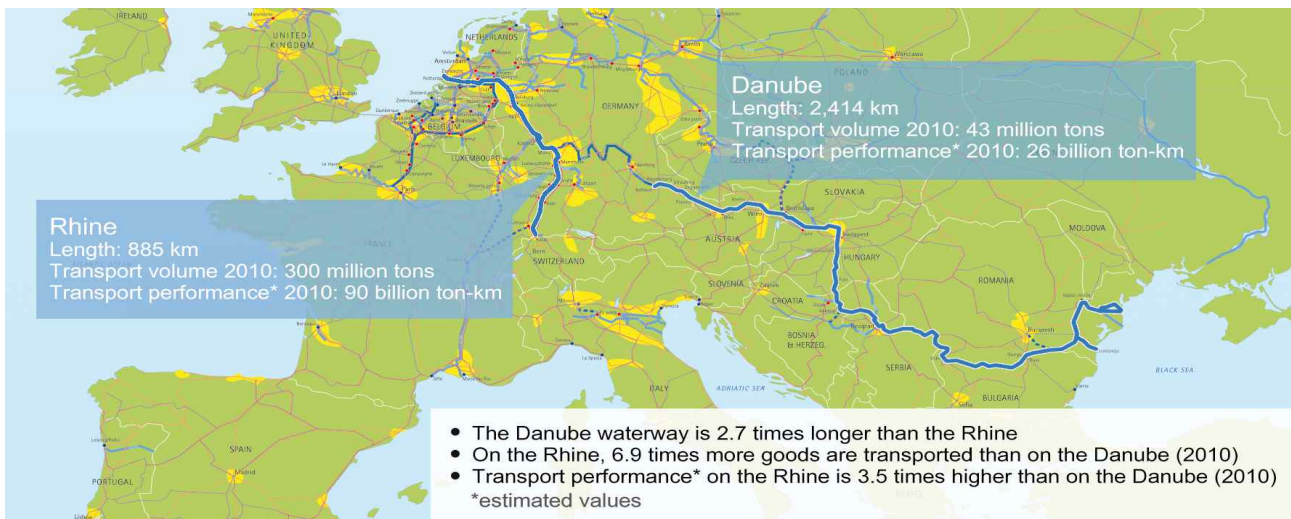
- 흑해크기 : (한반도의 2배) 동서1,150km, 남북 610km
- 흑해연안국 : (6개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불가리아, 조지아, 루마니아, 등
- * 경제 규모로는 러시아·터키가 주요 국가

☞ 흑해연안권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비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터키, 불가리아, 조지아 5개국 (러시아 제외)

- (경제력)러시아의 60%, 중앙아시아의 약 4배 규모
- (인구·시장)1억6천만 명, 러시아와 유사, 중앙아시아의 약 2.5배
- (국가별 경제순위)터키,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조지아 순

* 2013년 EU의 Danube Navigation 프로젝트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마일 강구를 관통해서 흑해로 잇는 Danube Waterway 실현만이 프로젝트 완성이라고 강조(출처 : Manual On Danube Navigation, Via donau, 2013)



자료원 : www.via-donau.org

* Construction of the Deep-Water Fairway Danube - Black Sea in the Ukrainian Part of the Danube Delta 프로젝트

- 인근 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프로젝트로
- 다뉴브강을 확장시켜서 흑해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에너지·물류 진출 확대

-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독립, 흑해의 물류거점화 필요시기에 맞춰 한국기업들의 진출확대 방안 마련
- 항만 및 에너지·곡물 터미널 개발과 같은 대단위 프로젝트 지원으로 한-흑해 물류 인프라 확대 필요

-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중소기업 시장 진출 확대
 -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유망 진출 품목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출이 필요한 시점

[EX. 우크라이나 유망 진출 품목]

품목	배경
에너지절약기기 (led lamp, 전기장판, 보일러, 펌프 등)	가스가격 현실화 ('14년 100% 인상, 15년 추가 100% 인상)
공구	유럽산 고가로 한국산으로 대체 수요
농기계	90% 노후화, 농업투자 활성화, 러시아산 구매기피 등 한국산 진출 공간
인테리어 자재 (커튼, 벽지, 바닥재 등)	주택단지 증가, DIY시장이 발달되어있는 현지 특성상 인테리어 자재 대형 시장이 형성
건설자재	2014년 건설경기 소폭 호전, 건설자재의 자국 생산능력 미약 등 으로 수입 시장 활성화 기대
유아용품 (아동복, 유모차 등)	유아용품 시장의 꾸준한 성장 온라인 유통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 2000년도 초반부터 꾸준한 출산율 증가로 인한 수요증가 기대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 (케이스 등)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인한 꾸준한 수요 증가 기기가 고가인 관계로 보호 케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화장품 시장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	안티에이징 화장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 자국제품 점유율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수입품의 시장 진입 여지 충분
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흐리브나의 가치하락과 인플레이션 불안으로 소비지출 증가 할부금융등 각종 파이낸싱이 발달하면서 소비자들의 구입 증가
동물성 의약품	양계업 발전으로 인한 의약품 수요 증가 AI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동물성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
태양광 모듈	우크라이나의 꾸준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크림반도 사태로 인해 에너지 자급에 대한 필요성 증가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일조량 조건으로 인한 태양광발전의 적합성
의료기기 (X-Ray 기기, 초음파 등)	우크라이나 병원 의료기기의 교체수요 증가 특히 X-Ray 기기의 수요가 높은 상황
자동차 부품	수입차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중이 높음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증가가 예상됨

* 자세한 상품 정보는 KOTRA Global window 우크라이나 상품정보 참고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14-016	태국 정정불안에 따른 영향 및 전망	2014.5
14-017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투자진출동향과 시사점	2014.6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14.6
14-019	변화기의 쿠바, 우리기업 대응전략	2014.6
14-020	남아공 대선과 산업경제 분석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시사점	2014.6
14-021	한캐 FTA 협력 유망 4대 산업	2014.6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구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4	2014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4.5
14-015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실무가이드	2014.5
14-016	러시아 에너지시스템 시장 현황	2014.5
14-017	201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4.6
14-018	Global Green Hub Korea 2014 결과보고서	2014.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2014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십 포럼	2014.1
14-002	2014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4.1
14-004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4.1
14-005	개성공단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설명회	2014.3
14-006	韓中服務産業優秀企業投資交流會	2014.3
14-007	중국 개혁개방 2.0시대 -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4.3
14-008	아프리카 중소형 플랜트 협력 포럼	2014.3
14-009	양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설명회	2014.4
14-010	(서울식품전 연계) 한중 식품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설명회	2014.5
14-011	2014 Global Project Plaza	2014.5
14-012	미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2014.5
14-013	쿠바 투자환경 설명회	2014.5

작성자

◆ 신흥시장팀	최민희
◆ 키예프 무역관	최진형
◆ 모스크바 무역관	오기찬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강환국
◆ 뉴욕 무역관	임소현

Global Market Report 14-018

우크라이나 대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4년 6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